

韓方時間醫學의 時代的發展에 관한 고찰

왕학감·윤창열*

韓方時間醫學의 時代的發展에 관한 고찰

劉宰暻·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韓醫學의 時間醫學은 在天人合一思想의 基礎上, 利用陰陽五行學說與五運六氣學說來研究人體周期性問題的學問, 經過長期的臨床實踐已經形成了其理論和體系, 至今其有效性亦得到驗證, 屬於比較實用的學問.

關於韓醫學의 時間醫學, 在『黃帝內經』中已經提出日週期和月週期以及年週期等, 形成了時間醫學의 基礎, 後在『傷寒論』中得到臨床上的實際應用. 自唐代王冰補入運氣篇後, 關於年週期和超年週期的研究得到了比較大的發展. 後來, 曆經宋金元明清, 出現了子午流注針法, 並於藥物服用時間的研究, 時令病的認識, 對疾病的時間診斷學的研究等方面, 均得到了持續而多樣的發展.

在以晝夜之變化爲特征的日週期中, 晝夜陰陽消長週期與晝夜升降浮沈週期, 對發熱疾患的治療及痊愈時間的預測有所幫助, 衛氣運行週期於睡眠機制的說明有所深化, 而五臟主時週期對五臟疾病的預防和病勢的預測以及投藥時期的確定有所幫助. 而日死亡週期可以活用於死亡時間的把握, 經脈氣血流注週期則對以後的按時取穴之子午流注針法和靈龜八法以及飛騰八法等的發展, 起到了主要作用.

關鍵詞: 時間醫學, 天人合一, 日週期, 月週期, 年週期, 超年週期.

I. 緒論

우리 한의학에서 診察·治療·豫防·養生하는데 있어 항상 天人相應關係를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치료에 있어 시간에 따라 그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古代醫書에서 자주 확인 할 수 있다. 時代에 내려오면서 그 내용이 점차 豊富해지며 또한 새로운 내용이 계속적으로 발전 해왔다 이것은 우리 역대의가들이 장기간동안 시간과 인체의 주기성을 관찰로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이런 인체 주기성에 대한 내용이 비로 풍부하나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아직 활발

하지 못하여 이것은 우리 한의학에 아주 강함 부분이면서 그러나 연구가 활동이 또한 결여 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의사학적으로 시간의학에 관한 부분을 연구하고자한다.

II. 本論

1. 春秋戰國時代의 時間醫學의 發展

이 시대는 奴隸社會에서 封建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한의학의 발전은 두 가지의 특이점이 나타난다. 하나는 실천의학의 발전이며 또 하나는 醫學의 理論의 형성이다. 『黃帝內經』이 바로 그 시대 의학수준의 구체적인 表現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內經』에서는 인체에는 여러 종류의 생체 週期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ency@dju.ac.kr
· 채택일 : 2007년 12월 1일

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중의 日週期(晝夜週期)중에는 陰陽消長週期와, 人氣生長 收藏週期, 衛氣周行週期, 經脈氣血注週期가 있으며 月週期 중에는 氣血盈虧變化週期, 月經週期가 있으며, 年週期 중에는 陰陽消長週期, 人氣生長受臟週期, 脈象變動週期, 色澤變動週期 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시간과 질병의 변동 관계에 대해서는 『內經』에 또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며 예를 들면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 말하기를 “朝則人氣始生, 病氣衰, 故 旦慧; 日中人氣長, 長則勝邪, 故安; 夕則人氣始衰, 邪氣始生, 故加; 夜半人氣入臟, 邪氣獨居於身, 故甚也”(아침은 사람의 正氣가 발생하므로, 邪氣가 衰하여 환자의 기분은 상쾌합니다. 낮에는 사람의 正氣가 盛하여 邪氣를 이기므로, 환자는 安靜됩니다. 저녁에는 사람의 正氣가 점차로 收斂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서 사기가 머리를 들게 되므로, 병세가 더해집니다. 밤에는 사람의 正氣가 五臟속으로 깊이 潛伏하므로, 邪氣가 逆上하여 病勢가장 심해집니다¹⁾). 라고 하였다. 그 외에 病勢의 變化와 豫後는 五臟의 특이성에 따라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肝病의 변화주기에 대해, 『素問·臟氣法時論』에서 말하기를 “病在肝, 愈在夏, 夏不愈, 甚在秋, 秋不死, 持于冬, 起于春 …… 肝病者, 愈在丙丁, 丙丁不愈, 加于庚申, 庚申不死, 持于壬癸, 起于甲乙; 肝病者, 平旦慧, 下晡甚, 夜半靜”(病이 肝에 있으면, 여름에 되어 낫게 됩니다. 만약 여름에 낫지 않으면, 가을에는 심해집니다. 가을에 죽지 않으면, 겨울동안 유지되다가 봄철이 되면 再發됩니다. …… 肝의 病은 丙丁日 에 낫습니다. 만약에 丙丁일에 낫지 않으면, 庚申일에 심해집니다. 다행히도 庚申일에 죽지 않으면, 壬癸일의 유지되다가, 甲乙일에 이르러 再發합니다.; 肝의 病은 새벽에는 가벼워지고, 저녁때에 심해지고 밤중에 조용해 집니다라고 하였다.²⁾ 이와 같이 시간의 週期에 근거해서 病因을 설명하고 病性を 확인하며 병변의 轉變과 豫後를 예측하게 한다.

『內經』에서 또한 脈象과 色澤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에 근거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이

씨 시간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治療원칙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天時를 따라 氣血을 조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靈樞·衛氣行』에서 “日有長短, 春夏秋冬各有分理 …… 謹候其時, 病可與期, 失時反候, 百病不治”(하루에도 낮이 길 때와 밤이 길 때가 있습니다. 春夏秋冬으로 晝夜의 길이에 消長와이 있습니다. 이를 잘 考慮하여 …… 그 때를 살펴 시술합니다. 이를 失期하면 效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³⁾)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총괄해서 말하면 『內經』은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여러 부분에 있어 이미 한의학적 時間醫學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⁴⁾.

【考察】

춘추시대에 이르러서는 경험적인 지식의 축적이 비교적 풍부하게 되었으므로 학술문화, 예컨대 천문, 역산 등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며 음양오행설 등의 학설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⁵⁾.

이 시기에 우리는 아직 생리 병리에서 진단 치료에 이르는 계통적인 이론성을 전술할 수 없었지만 이와 관련한 일부 기재들을 볼 때 진단과 치료는 확실히 이미 이론화의 방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의학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의 연속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이론기초가 이 시기에 대부분 완성되었으며 후대에 와서 그 이론기초위에 더욱 많은 내용을 추가하여 오늘에 와서 과학적 실험으로 확인해도 그 유효성이 증명된다. 그래서 韓醫學時間醫學의이론의 시작은 또한 내경의 내용부터 시작했으며 후대에 와서 그 이론을 더욱 확대하여 표현한 것뿐이다.

2. 秦漢時代의 時間醫學의 발전

秦漢時期는 한의학 時間醫學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時間醫學理論의 임상응용이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또한 辨證論治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의서가 東漢 張仲景이 쓴 『傷寒雜病論』이

다. 장중경선생은 장기간의 臨床實踐에 의해 疾病이 시간적 주기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면 虛勞病에 대해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에서 말하기를 “勞之爲病 其脈洪大, 手足煩, 春夏劇(허로병은 그 맥이 洪大勞하고 손발에 번열이 나는데 봄 여름에 심하나)”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虛勞病의 年주기에 대해서 논술한 것이며, 帶下崩漏病 증상에 대해 『金匱要略·婦人病脈症并治』에서 말하기를 “暮則發熱, 小腹裏急, 腹滿, 手掌煩熱, 脣口乾燥(해질 무렵이면 열이 나고 아랫배가 땡기며 뺨속이 그득하고 손바닥에 번열이 나며 입술과 입이 건조해진다.)”라고 하여 晝夜의 주기성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風濕病 환자의 “一身盡痛, 發熱, 日晡所劇(온몸에 다 아프고 열이 나는데 해질 무렵에 심하다)”과 女勞瘕 환자의 “日晡所發熱 而反惡寒(해질 무렵에 열이 나면서 도리오 오한한다)”과 婦女子가 熱入血室의 疾患이 있을 때의 “傷寒發熱 經水適來, 晝日明了, 暮則愴語, 如見鬼狀(상한으로 열이 나는데 마침 월경이 시작되었는데 낮에는 정신이 맑지만 저녁이면 헛것을 헛소리한다.)” 그리고 乾薑附子湯症의 “下之後, 復發汗, 晝日煩躁, 不得眠, 夜而安靜, 不嘔, 不渴, 無表症, 脈沈數, 身無大熱(설사시킨후 다시 땀을 내어 낮에는 번조하며 잠을 못자다가 밤이면 안정되고 구역이나 갈증이 없으며 표증도 없고 맥이 침삭하면서 몸에 큰열은 없다.)”과 小承氣湯證의 “陽明病, 譫語, 發潮熱, 脈滑而疾(양명병으로 헛소리하고 潮熱이 나며 맥이 활삭하면서 빠르다.)” 등이 모두 질병의 주야의 주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六經辨證은 張仲景선생이 外感病症을 위해 만든 辨證體系이며, 이 六經병의 완쾌에 대한 시간적 주기성이 『傷寒論』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면 “太陽病 欲解時 從巳至未上”; “陽明病 欲解時, 從申至戌上” “少陽病 欲解時, 從壬至辰上”; “太陰病 欲解時 從亥至丑上” “少陰病 欲解時, 從子至寅上”; “厥陰病 欲解時, 從丑至卯上” 등과 같이 六經병의 完快시간을 언급하였다. 『傷寒論』에서는 질병의 完快週期는 음양 변화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凡病欲得知何時

得, 何時愈 …… 日中得也夜半愈者, 以陽得陰解也 夜半得病明日日中愈者, 以陰得陽解也(모든 병이 어느때 생겨서 어느때 낫는지를 알고자 한다... 낮에 발병하여 밤에 낫는 것을 양이 음을 만나 풀린 것이고, 밤에 발병하여 다음날 낮에 낫는 것은 음이 양을 만나 풀린 것이다.)”라고 機轉을 說明하였다.

擇時치료와 服藥에 있어, 張仲景선생은 많은 구체적 規定을 제시하였으며 있으며 후세의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처음으로 汗吐下의 適當한 시간을 언급하였는데, “春夏宜發汗”, “春宜吐” “秋宜下” 등이다. 이 방법들은 후세에 와서도 임상에 많이 強調되고 있다. 특히 金元四大醫家가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였으며 많은 임상효과를 얻었다.

또 시간에 따른 약의 服用에 대해 張仲景선생은 十棗湯은 “平旦溫服之”하고, 澤漆湯은 “溫服五合, 至夜盡”하고, 皂莢丸은 “日夜一服”하고 麥門冬湯은 “日三夜一服”하고, 小青龍湯加石膏湯은 “日三服”한다고 하였다.

총괄하여 말하면 秦漢時期的 발전은 장중경선생의 임상에 집중돼 있으며 그는 많은 질환의 시간적 주기성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을 택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考察】

『傷寒論』의 時間醫學의 발전에 대한 영향

- 1) 일부 병증에 대해 깊은 時間醫學的 견해를 밝혔으니, 陽明病의 “日晡潮熱”, 黃汗證의 “暮躁不得眠”, 女勞瘕의 “手足中熱, 薄暮則發”, “日晡所發熱, 而反惡寒” 熱入血室證의 “晝日明了, 暮則愴語” 乾薑附子湯證의 “晝日煩躁, 不得眠, 夜而安靜” 등 病症 변화의 시간성은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 2) 치료방법에 있어서 “春宜吐” “秋宜下” “春夏宜發汗” 등 汗吐下三法の 사용계절을 제시, 十棗湯의 “平旦溫服” 등 병의 特性에 따라 치료시기를 정하는 것을 또한 提示하였다.
- 3) 질환의 완쾌시간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한의학 特性중의 하나로 형성되었다 그

는 六經병의 완쾌시간에 대해 太陽病은 완쾌시간이 9-15시에 있으며 陽明病은 15-21시 少陽病은 3-9시 太陰病은 21-3시 少陰病은 23-5시, 厥陰病은 3-7시에 낫는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질환의 陰陽屬性과 부위에 따른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3. 兩晉 隋 唐 時期 時間醫學의 발전

이 시기의 時間醫學의 발전에 대해서 고찰해보면 陳延의 『小品方』에서 消渴病의 小便頻數을 치료하는데 약을 밤에 복용하고 伏梁心積方을 아침에 복용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黃疸病에 치료할 때 麻黃의 사용에 있어 “冬月用酒 春月用水煮之(겨울에는 술로 달이고 봄에는 물로 달인다)” 라고 하였다.

孫思邈의 『千金要方』에도 時間醫學의 임상내용이 많이 있으며 약물과 치료에 대해 모두 擇時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人蔘湯을 사용하여 客熱을 치료할 때에는 아침부터 오후 晡時에 복용해야 하며 黃昏과 夜間 복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失精, 多睡, 目眩暈症에 羊旨湯을 복용할 때에 平旦에, 風痺를 치료하는데 荊瀝湯을 사용할 때에 마땅히 오후에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鍼治療에 대해 “春當刺少商 夏刺魚際 皆瀉之 季夏刺太淵 秋刺經渠 冬刺尺澤 皆補之(봄에는 소상, 여름에는 어체에 침을 놓는데 모두瀉하고, 장하에는 태연, 가을에는 경거 겨울에 척택에 침을 놓는데 모두 보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

『外臺秘要』에서도 약물의 사용시간에 대해 많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咳嗽氣喘의 上氣方을 사용함에 있어 夜臥時間에 복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療痲方은 平旦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養生에 있어 “人不得每夜食(사람은 늦밤에 먹으면 안 된다)”와 “不生肉膾 必須日午前, …… 午後 陰陽交, 人腹中亦順天時 不成癥積, 亦能癘亂.(생고기 먹는 것은 반드시 오전의 …… 오후는 음양이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며 사람의 복부는 또한 천시를 따르므로 癥積이 안되면 또한 癘亂이 된다.)”

“野鷄春月以後不堪吃 葵性滑 夏不堪吃(꿩은 春月후에 먹으면 안 되고 葵의 성이 滑하니 夏에 먹으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있다.

【考察】

兩晉 隋 唐 時期에 의학적 발전의 특징은 임상 의학의 풍부한 축적이며 특히 질환의 인식 및 醫方의 創製와 新藥物의 발견 등 다방면에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약물 복용시간 鍼治療의 適期, 養生 등 다방면에서 秦漢時代의 醫學을 이어 발전하였다. 한의학의 발전 과정은 實踐에서 理論으로 다시 理論에서 實踐의 反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時間醫學은 秦漢의 時間醫學 이론 기초인 『內經』의 이론을 實踐하여 경험을 蓄積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4. 宋 金 元 時期 時間醫學의 발전

宋 元 金 時代를 대표하는 時間醫學은 運氣學說 및 子午流注鍼法이라고 생각된다. 이 학설은 많은 발병주기를 이야기하였는데, 예를 들면 年週期(主運과 主氣週期), 五運週期(中運週期), 六年週期(客氣週期), 十年週期(客運週期), 十二年週期(客主加臨週期) 등이 있다.

運氣醫學은 소위 五運六氣로 疾病의 발전과 輕重을 豫測하는 학설이다. 이 學說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 現在 確實히 考證할 수는 없다. 최초 記錄으로는 唐代 王冰이 『素問』에 補入한 七篇의 文章이다. 『素問』은 원래 모두 9卷이었으나 全元起가 註解할 당시 이미 第七卷이 亡失되었다. 王冰이 『素問』을 注할 때 補充하여 81篇으로 만들었다. 宋代에 이르러서 補充한 것 중, 또 第七卷의 두 篇이 散失되어 다만 일곱 篇만이 남게 되었다. 이 일곱 篇이 現在 『素問』의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과 「至眞要大論」이다. 이 일곱 篇의 主要內容은 五運六氣學說이다. 그러나 이 學說은 漢代에 言及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兩晉南北朝에도 記錄이 나타나 있지 않다. 王冰이 注한 『素問』은 唐 寶應 元年

에 이루어졌으나 唐末期에서 宋의 初期(11世紀前半)에 이를 때까지 약 300년간 이런 學說을 引用한 사람이 없으며 嘉祐(1056)에 이른 후에 비로소 龐安常 楊子建 등이 이 學說을 引用하였다⁶⁾. 宋元符二年(1099)에 劉溫舒가 저술한 『素問論奧』는 전문적으로 五運六氣를 論述하면서 또한 繪圖설명을 하여 宋조정에 바쳐, 이 학설을 크게 유행하게 하였다. 王安石의 變法 後에 또한 이 五運六氣학설은 太醫局의사의 시험과목으로 정하였으며 심지어 “不讀五運六氣, 檢遍方書何濟(五運六氣를 읽지 않으면 의학서적을 다 읽은들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학識語가 생겨날 정도였다. 運氣학설 중에 많은 時間醫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서 이 시대의 時間醫學의 특징이 되었다⁷⁾.

宋代 陳無擇의 『三因極一病症方論』에 「六氣時行民病證治」가 있는데 바로 運氣의 이론기초 위에 질병의 발생과 발전과 六年周期를 연계하였다. 예로 “辰戌之歲, 太陽司天, 太陰在泉, 初之氣, 民病溫, 身熱, 頭痛嘔吐, 肌癢瘡瘍, 二之氣, 民病氣鬱中滿, 三之氣, 民病寒, 發熱中, 癰疽注下, 心熱脊悶, 四之氣, 民病大熱, 少氣, 肌肉萎足萎, 注下赤白, 五之氣, 民氣乃舒, 終之氣, 民病慘慘孕死.(辰戌의 해에는 太陽이 司天하고 太陰이 在泉한다. 初之氣에는 백성이 온병을 앓아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구토하고 피부네 창양이 생긴다. 二之氣에는 氣가 울체되어 속이 더부룩한 병이 생기고, 三之氣에는 상한에 걸려 열이 나고 옹저, 심한 설사, 흉증이 뜨겁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 四之氣에는 大熱病을 앓아 기가 부룩하고 기육이 위축되어 다리에 힘이 없으며 적백의 이질을 앓는다. 五之氣에는 백성의 기운이 안정되고, 終之氣에는 처참해져서 태아가 뱃속에서 죽는다.)”라고 하였다. 기타의 년에 또한 六氣에 의해 時行疾患을 열거하였으며 또한 매년의 主用方劑와 시간에 따라 加減하는 방법을提示하였다. 예를 들면 辰戌의 해는 靜順湯 위주로 사용하며, 加減法은 大寒에서 春分까지는 附子를 去하고 구기자를 더하며, 春分에서 大滿까지는 原方에 구기자를 더하며, 小滿에서 大暑까

지는 去附子. 木瓜. 乾薑을 빼고 人蔘, 枸杞, 地榆, 香白芷, 生薑을 더하며, 大暑에서 秋分까지는 原方에 石榴皮를 더하며, 秋分에서 小雪까지는 原方에 加減하지 않는다. 小雪에서 大寒까지는 牛膝을 빼고 當歸, 芍藥, 阿膠를 더한다. 이처럼 宋金元시대는 질환의 치료에 있어 시간요인을 더욱 중시하였다.

金元四大醫家 또한 時間醫學에 대해 나름대로의 연구가 있다. 특히 李東垣이 그 중의 대표자다. 『脾胃論』, 『內外傷辯惑論』, 『蘭室秘藏』, 『醫學發明』 등에서 李東垣은 이미 계절에 근거해 처방과 용약의 法度를 정하는 논술이 있다. 예를 들면 봄에는 사용하는 약중에 清涼한 風藥을 가하고, 여름에는 大寒藥, 가을에는 溫氣藥, 겨울에는 大熱藥을 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冬不用白虎, 夏不用靑龍, 春夏不用桂枝, 秋冬不服麻黃(겨울에는 백호탕을 쓰지 않고, 여름에는 대청룡탕을 쓰지 않고 봄여름에 계지탕을 쓰지 않고 가을 겨울에는 마황탕을 복용하지 않는다.)”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각자 다른 時令方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봄에는 補中益氣湯, 여름에는 清暑益氣湯, 가을에는 升揚益胃湯, 겨울에는 神聖復氣湯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계절에 따라 加減이 같지 않는 것을 또한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羌活愈風湯은 望春의 大寒후에 복용하여야 하는데 마땅히 半夏, 柴胡, 人蔘을 가하여야 하며, 望夏之月에 복용하면 마땅히 石膏, 黃芩, 知母를 가하여야 하고, 季夏之月에 복용하면 마땅히 防己, 白朮, 茯苓을 가하고, 初秋大暑에는 마땅히 厚朴, 藿香, 桂枝를 가하고, 霜降之後 望冬에는 附子, 當歸를 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擇時服藥에 대해 李東垣은 食前服, 食後服, 食遠服, 空心服, 五更服, 上午服, 下午服, 臨臥服과 不拘時服 등을 제시하였으며 時間診斷學에 있어 그는 “晝則發熱 夜則安靜 是陽氣自旺於陰分也 晝則安然 夜則發熱煩燥 是陽氣下陷於陰中也 …… 晝則發熱煩燥 夜發熱煩燥 是重陽無陰也 (낮에 열이 나다가 밤이면 안정되는 것은 양기 음분에서 왕성한 것이다. 낮에는 편안하다가 밤

이 되면 열이 나고 번조하는 것은 양기가 음분 속으로 하함한 것이다. …… 낮에도 열이 나며 번조하고 밤에도 열이 나며 번조하면 이것은 陽氣 만 많고 陰氣는 없는 것이다.”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李東垣이 韓方時間醫學에서 이런 큰 발전을 이룬 것은 그의 스승 張元素의 학술사상과 관계가 있다 장씨의 『醫學啓源』에는 이미 많은 量의 時間醫學적 論述이 있었다. 李東垣은 張元素의 많은 時間醫學的 경험을 계승하고 그의 제자 羅天益에게 전수하였으며, 羅天益은 時間醫學에 대해 더욱 깊은 研究를 하였다. 羅天益은 『衛生寶鑑』에서 ‘時不可違’의 원칙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舍時從證’의 변통하는 방법을 提示하였다. 이것은 또한 張子和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張子和는 ‘春宜吐’, ‘春夏宜汗’, ‘秋宜下’의 치료원칙을 주장하였으며 그는 또한 “四時有急吐者 不必直待春時也(사시에 급히 토해야 할 경우에는 굳이 봄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設若秋冬得春夏之病 當不發汗乎 但春夏易而秋冬難耳(만일 가을과 겨울에 봄여름의 병을 얻었다면 당연히 발한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봄여름에는 쉽지만 가을겨울에 어려운 따름이다.)”, “設若春夏有可下之疾 當不下乎 此世之庸工踟躕遷延 誤人大病者也 皆曰 夏月豈敢用過藥瀉脫胃氣 嗚呼 何不達造化之甚也(가령 봄여름에 설사를 시켜야 할 병이 있다면 마땅히 설사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어리석은 의사들은 잔뜩 움추린채 시간을끌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병을 키우는데, 모두 말하기를 여름에 어찌 약을 과도 하게 써서 胃氣를 빼앗으리오, 라고하니, 아! 조화에 통달하지 못함이 어찌 이리도 심하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시간이라는 요인은 질병의 발생과 발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긴 하나 전부가 아님을 설명한 것이다.

宋金元時期的 時間醫學에서 또 하나의 발전은 바로 子午流注針法의 발전이다. 臟腑氣血流注의 최초기록은 『內經』에서 처음 나타나지만 金代의 『子午流注針經』이 비교적 완전한 子午流注針法을 제시하였다. 子午流注鍼法의 발전은 침구학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考察】

宋元金時代는 前代의 임상경험에 근거해 다시 탐구하여 이론적으로 승화시킨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 時間醫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임상에서 時間醫學의 주기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 2) 時間醫學 관찰에 있어 방법론상의 다양화를 이루었다.
- 3) 약물복용을 시간에 따라 선택하며 그리고 복용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 4) 子午流注의 발전에 의해 人體臟腑經絡의 氣血盛衰週期에 대한 계통적 정리와 安時取穴法이 創始되었다.

5. 明清時期 時間醫學의 발전

明清時期는 時間醫學이 宋金元시기의 기초 위에 더욱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李時珍 『本草綱目』에서 「四時用藥例」의 專論이 있는데 春월에 辛溫藥, 夏월에 辛熱藥, 秋월에 酸溫藥, 冬월에 苦寒藥을 加味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시기운에 순응하고 자연의 조화로운을 기르는 것이고 주장하였다. 王清任은 瘀血發熱이 晝夜의 週期性和 그리고 節氣가 전환할 때 재발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唐容川은 『血證論』 중에서 상세히 이 ‘時復’과 血證의 年週期和 治法과 治方에 대해 설명하였다. 趙獻可는 內經의 기초 위에 “冬至一陽生 夏至一陰生”과 “朔後爲陽 望後爲陰”이라는 유명한 논점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임상에서 진단과 치료를 이것으로 基準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陽病則晝重而夜輕, 陽氣與病氣交旺也, 陰病則晝輕而夜重, 陰氣與病氣交旺也 若夫陽虛病則晝輕, 陰虛病則夜輕, 陰陽各歸其分也. 治之者即定其時, 當避其銳鋒, 若勢已殺, 當擊其惰歸, 恐曠日持久, 反生他患也. 至於或晝或夜, 時作時止, 不時而動, 是純虛之證, 又不拘於晝夜之定候, 當廣服補藥, 以養其正.(陽病은 낮에 심하고 밤에 가벼우니 낮에

陽氣와 病氣의 싸움이 심하기 때문이다. 음병은 낮에 가볍고 밤에 심하니 밤에 陰氣와 病氣의 싸움이 심하기 때문이다. 만일 陽虛病이라면 낮에 가볍고 陰虛病 이라면 밤에 가벼우니 陰 과 陽이 각각 자기자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치료하는 자는 그 시기를 정하여 그 예 봉을 피해야 하며, 말일 세력이 이미 쇠퇴하였으면 그 돌아간 곳을 공격해야 한다. 헛되이 날을 보내어 시간을 끌면 도리어 다른 병이 생긴다. 밤이나 낮에 때로 발작하다가 때로 멈추어 때가 아닌데 동하면 이것을 순수한 허증이므로 주야의 일정한 때에 압매이지 말고 보약을 먹어서 그 정기를 길러야 한다.) ”라고 하였다. 鄭守全은 『醫學眞傳』에서 “子時一陽發動, 起眞水上交于心, 午時一陰初生, 降心火下交于腎, 一升一降, 往來無窮, 性命于是乎立(子時에 一陽이 발동하여眞水を 일으켜 위로 心上과 교류케하고 午時에 一陰이 처음 생겨나 心火를 내려 아래서 腎과 교류케한다. 한번 오르면 한번내려가 오고 감이 끝이 없으니 性命이 이에 바로선다.)”라고 말하고, 이에 근거하여 많은 時間과 관계가 되는 병증의 원리 및 치료방법을 분석하였다.

明清時期的 또 하나의 의학 발전은 溫病學派의 출현이다. 溫病은 一種의 시간성이 강한 질환이다, 溫病大家 葉天士는 시간에 따라 치료하는 논술이 많이 있었으며, 그는 시간의 주기를 따라 病因病機를 해석하고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질환을 치료하며 용약을 하였다. 그의 擇時服藥에 관한 전형적 醫案이 있는데, 예를 들면 “早溫腎陽, 晚補脾氣”, “晨滋腎陰, 午建脾陽”, “晨補腎氣晚滋胃陰”, “早服攝納下焦, 晚進純甘清燥”, “早溫腎利水, 晝健脾利水”, “早滋腎水, 臥寧心神; 早納少陰腎, 氣晚溫陽添飲” 등이 있다.

雷少逸은 『時病論』에서 一年四季의 多發病에 관해 전문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봄에는 春溫, 風溫, 傷風, 여름에는 泄瀉, 痢疾, 中暑, 가을에는 瘧疾, 濕溫, 秋燥; 겨울에는 咳嗽 傷寒, 冬溫 등의 발병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런 계절병 모두 각각의 발병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면 雷氏는 “夫春時病溫, 夏時病熱, 秋時病涼, 冬

時病寒 …… 按四時五運而分治之, 名爲時醫, 是爲時醫必識時令, 因時令而治時病, 治時病而用時方, 且防其何時而變, 決其何時而解, 隨時斟酌(무릇 봄에 온병을, 여름에는 열병을 가을에는 涼病을 겨울에는 寒病을 앓는다. …… 사시의 五運에 근거해서 구분하여 치료하니 이를 時醫라 한다. 時醫는 반드시 계절을 인식하고, 계절에 따라 계절의 병을 치료하고 계절의 병을 치료할 때는 계절방을 사용하여 어느때 병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언제 병이 풀릴 것인지를 판단해서 시기에 따라 짐작해야 한다.)”라고 하였다⁸⁾.

【考察】

명청대 時間醫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溫病學說의 발달과 함께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時令病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되었다.
- 2) 질환에 대해 時間診斷學的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였다.
- 3) 약물의 특성에 따라 약물복용시간을 선택하였다.

III. 結 論

韓醫時間醫學의 時代的發展에 關한 것을 고찰하고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한의학의 시간의학은 天人合一觀의 기초사상위에서 陰陽五行說과 五運六氣說을 이용하여 인체의 주기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이론화되고 체계화되어 오늘날에도 그 유효성이 입증되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2. 韓醫學의 시간의학은 『黃帝內經』에서 이미 日週期, 月週期, 年週期 등을 제시하여 시간의학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이후 상한론에서 임상적 응용이 이루어졌다. 唐대 王

氷의 운기편 補入으로 年週期和 超年週期에 대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다. 宋金元 明清은 거치면서 子午流注針法の 출현 藥物服用時間에 대한 研究 時令病에 대한 인식 疾病에 대한 時間診斷學적 研究등이 지속적으로 多様な 發展을 이루어졌다.

3. 晝夜의 變化로 나타나는 日週期에서 晝夜陰陽消長週期和 晝夜升降浮沈의 週期는 發熱 질환의 치료 및 晝夜시간예측에, 衛氣運行週期는 수면에 대한 기전을 설명하는 데에 五臟主時週期은 오장질환의 예방 병세예측 投藥時期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日死亡週期는 사망시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經脈氣血流注 週期는 이후 按時取穴하는 子午流注針法 靈龜八法 飛騰八法등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1. 洪元植譯,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1982, p. 191.
2. 洪元植譯, 黃帝內經素問解釋, 서울, 高文社, 1982, p. 129.
3. 洪元植譯,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1982, p. 319
4. 張年順, 實用中醫時間醫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 24
5.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 25.
6.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p. 244
7.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p. 244.
8. 張年順, 實用中醫時間醫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 31.